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콘텐츠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지난해 12월에 2019년 콘텐츠산업을 전망하며, 6개 키워드를 선정하고 올해 주요 산업 흐름을 예측했다. 실제 6개 키워드인 ① 플랫폼 전쟁—인피니티 워, ②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③ 환생—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④ 게임, 문화인가 질병인가 ⑤ 블록체인, 성장통을 겪다, ⑥ 노인을 위한 나라가 온다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나타났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다음 4개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다.



웹툰 '무당'.



웹툰 '아내를 죽였다'.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1

웹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이 확산되고 있다. EVR스튜디오는 11월 13일 석정현 작가의 웹툰 '무당'을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작가는 2006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마블사가 코믹스의 표지와 포스터 일러스트를 의뢰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다. 무당 IP를 활용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TH(가제)'는 EVR스튜디오의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로 만들어진다. 이는 실사 느낌의 캐릭터를 구현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EVR스튜디오 측은 설명했다. 콘솔과 PC용 인터랙티브 무비,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의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 '좋아하면 울리는'은 다음 웹툰 원작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어플이 개발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로맨스 드라마다. 시즌1은 올해 8월 공개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남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음 웹툰 원작의 영화 '아내를 죽였다'가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음주로 전날 밤의 기억이 사라진 남자가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다. 원작 웹툰은 지난 2010년 연재될 당시 평점 9.4점을 기록하며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영화 '아내를 죽였다'는 제32회 도교국제영화제 경쟁부문인 '아시아 퓨처'에 초청됐다.



1 중국 섯다운제.
2, 3 게임을 즐기는 미국 퇴역 군인.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

게임, 문화인가 질병인가

02

중국이 내년 2월부터 미성년자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셋다운제'를 도입한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11월 5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평일에는 하루 90분, 주말에는 3시간만 접속을 허용하고,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를 월 최대 400위안(약 6만 5,000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모든 게임에 실명 인증제를 도입해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이 섯다운제를 도입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게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을 퇴역 군인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전국의 보건부 퇴역 군인 재활센터(VA rehab center)에 엑스박스 접근성 컨트롤러를 보급했다. 재활센터는 비디오 게임 플레이가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의 운동 능력, 인지 능력과의 사경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다. 또 퇴역 군인들이 엑스박스 게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회복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센터는 비디오 게임이 약물 남용 장애를 극복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무비블록 한겨레교육 MOU 관련 이미지.

블록체인, 성장통을 겪다

03

블록체인과 콘텐츠 플랫폼의 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지니캐스팅은 11월 12일 '엔드페이먼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사업을 통해 결제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니캐스팅은 손쉽게 고품질 오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셀프 오디오 스튜디오'로 보컬, 댄스, 연기, 모델 개그 등 원하는 장르의 오디오 영상을 다양한 크로마키 배경과 합성할 수 있다. 지니캐스팅은 압제인과 제휴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디오를 비롯해 글로벌콘텐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영화 제공 플랫폼 '무비블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창작자에게는 투명한 수익 내역과 시청자 데이터, 공평한 상영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관객이 직접 작품을 큐레이션하거나 자막제공, 영화홍보를 하면 무비블록 토큰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무비블록은 11월 12일 한겨레교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영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작자 육성에도 나선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무비블록은 한겨레교육 영상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우수 제작자와 연출자의 작품을 무비블록 플랫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홍렬 TV 캡처.

덕화 TV 캡처.

노인을 위한 나라가 온다

04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동영상 촬영 장비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판매 집계 결과, 60대 이상 회원들의 액션캠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46%, 영상촬영장비는 21%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키보드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인싸템'에 대한 구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블루투스 헤드폰은 9월까지 판매량이 각각 24%와 59%로 크게 늘었다. G마켓은 "스마트폰과 연계해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면서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기어 아이콘X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스마트 제품을 찾는 60대 이상 고객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는 노년층의 일상 속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가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년층 연예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노인들의 유튜브 활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67세의 배우 이덕화는 올해 초 '덕화TV'를 개설했다. 이덕화는 카메라를 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혼밥'에 도전했다. 유튜브에 도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덕화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이 든 분들이 많아 그들을 위한 길잡이로 나섰다"면서 "방송 출연을 꺼리던 아내도 한두 번 같이 해보더니 재미있어 한다. 연로한 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65세의 개그맨 이홍렬도 '이홍렬TV' 채널을 개설해 반려동물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 공개에 나섰다. 이홍렬은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직접 한다고 밝혔다.